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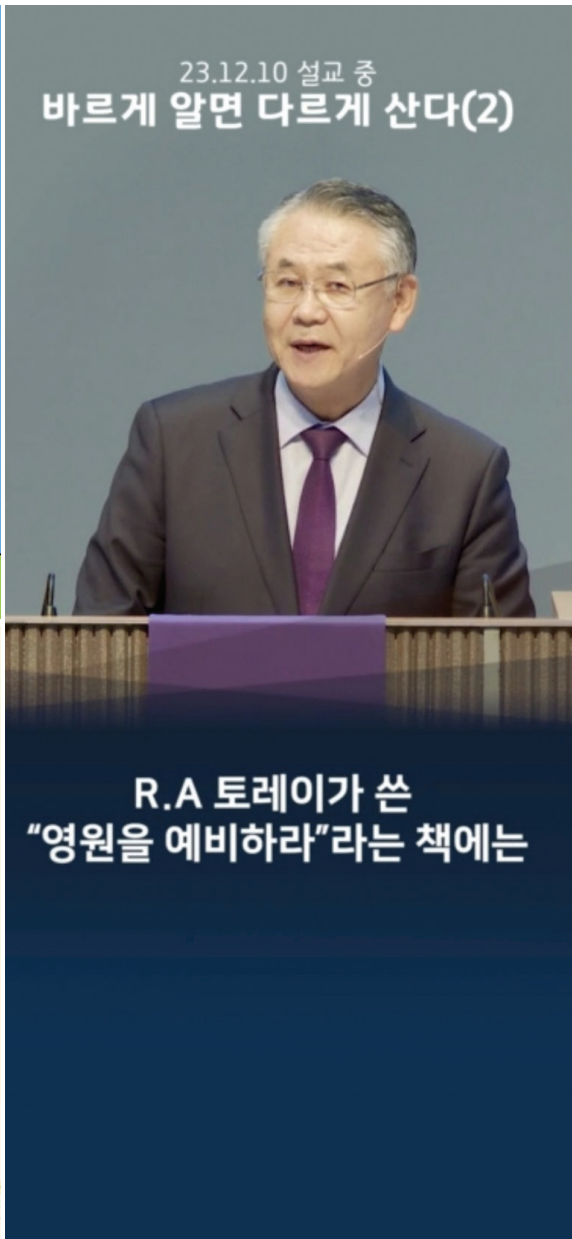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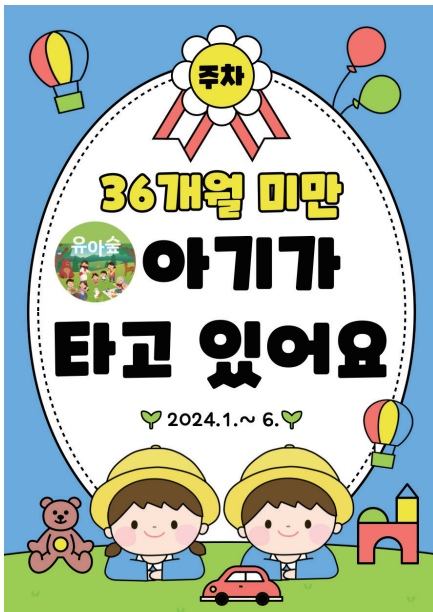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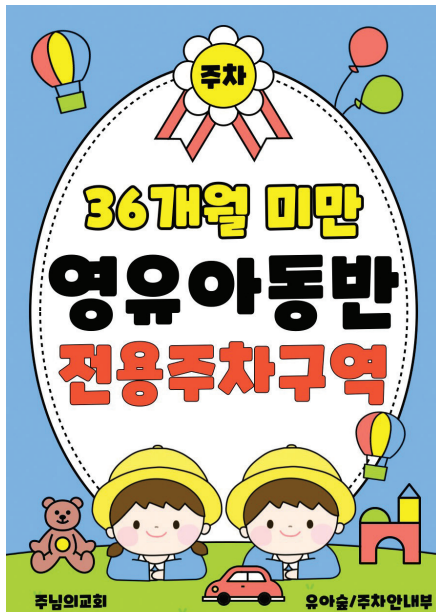


오늘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_이사야 60:1-3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하나님 백성의 선교 요약 | 5-19 | 전교인설문조사 결과 | 22 | 가정예배학교 |
| 3 | 청소년순 / 군경선교부 | 20 | 성탄가족예배 / 음악예배 | 23 | 파더와이즈 |
| 4 | 권면의말씀 / 부임인사 | 21 | 유아세례 | 24 | 편집후기 |



바뀌어야 하는 것과 바뀌어서는 안되는 것

2023년의 마지막 날에 2023년 마지막 송년호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이 날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일 뿐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2024년의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인데 끝이 아니라 이 날이 지나면 새 날이 되는 신비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새 날에 맞춰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은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주차구역 안내 표지가 바뀝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동반차량, 75세 이상 자가운전자, 장애인차량은 안내 표지가 있는 곳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 설교내용을 요약한 3분 메시지가 1분 길이의 쇼츠로 바뀝니다. 유유청의 아이들은 반이 바뀌고 부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교역자와 부서장 등 담당 사역자들이 바뀌는 사역부서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중심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보고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며 모든 것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주님의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귀하고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시리즈
하나님 백성의 선교⑧-1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백성 1

우리는 앞 장들에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윤리적 차원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에 헌신하고, 야웨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며,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한 총체적인 구속적 축복을 위해 일하고, 세상 한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에 헌신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기를 애타게 바라신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낯선 자를 집에 들어오도록 초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주된 방법은 그분 자신의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심으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신명기 4장 5~8절은 **하나님을 정말로 그들의 존재 및 행동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일부분이라는 것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구심력, 곧 하나님 자신의 중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신명기 4:5-8) - 볼 수 있음

이스라엘은 세상 한 복판에서 살았다.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하던 그들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과 관련하여 속속들이 ‘노출되어’있었다. 그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하나님 백성의 경계 너머에 있는 자들이 **무언가를 볼 수 있어야만 했다.** 그 자체가 선교적 관점이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그 메시지에 의해 자신이 변화되어야만 하고 또한 눈에 보여야만 한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신명기 4:5-8) - 비교할 수 있음

7절과 8절의 두 수사적 질문의 취지는 **비교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사회적·법적 제도에 담긴 전반적인 인도주의적 정신과 정의는 구약 당시 세계의 다른 고대 법전을 매우 자세하게 비교 연구한 많은 학자들의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들조차 **구약 율법이 오늘날에도 사회적 적절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한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신명기 4:5-8) - 도전할 수 있음

요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고자 애쓰면 열방이 그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윤리적 특성이 열방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도전이 된다. 그러나 진짜 도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식으로 살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의 선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 호기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자랑할 지라도, 그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서 아무런 차이를 볼 수 없으면, 세상이 우리의 주장에 주의를 기울일 이유는 없을 것이다.

모여드는 구도자들(왕상 8:41-43, 60-61) -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14-2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세 가지 요소는 솔로몬 통치 시기에 극적으로 성취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나라가 되었고 풍부한 복을 주셨으며,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안전을 제공하셨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열방과 공유하는 복이 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모여드는 구도자들(왕상 8:41-43, 60-61) -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이방인(41-43절)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을 열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한다. 그러나 또 이런 말이 나온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도 들어달라**는 말이다. 이 기도에는 놀라운 개방성, 긍휼, 비전이 담겨 있다. 솔로몬의 기도는 열방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멀리 퍼져 나갈 것을 예상한다.

이 기도에는 몇몇 가정을 한다. 다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의 평판(“주의 크신 이름”)을 **들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도 그 같은 가정들로 말미암아 격려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땅 끝에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모으실 수 있으며, 예배와 기도를 불러일으키시고 **아직 그분의 언약 백성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이유로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자신의 평판이 더욱 멀리 퍼져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성전에 오게 되는 이유이다. 이것이 선교 사적 기도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분명 우리에게 선교의 가장 큰 동기는, 주의 이름이 땅 끝까지 알려져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여드는 구도자들(왕상 8:41-43, 60-61) -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백성(60-61절)

솔로몬은 기도를 마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말한 내용을 반복하고 나서 동일하게 현저히 선교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도를 행하라고 촉구한다. 선교(60절)와 윤리(61절)의 결합은 창세기 18:19만큼이나 분명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알려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살아 있는 백성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야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을 반영할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아는 마음을 품도록, 와서 그분께 기도하도록 끌어들이 수 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이다.

열왕기상 8:60~61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구할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표준에 따라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을 살면서 야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매력을 나누는 흥분과 기쁨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그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살고자 애쓸 때 시작된다.

함줄함울

청소년수련
수험생 위로

애들아!! 고생많았어~

수험생위로·격려 카페, '전부주막'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전부 주막'! 수험생위로·격려 카페가 11월 16일(목)에 열렸습니다. 주막을 컨셉으로 장소를 꾸미고 식혜, 어묵, 떡볶이, 빵튀기, 투움바 파스타 등의 메뉴를 준비해서 수능시험 보느라 애쓴 학생들, 대학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부와 씨름한 아이들을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입시결과에 대한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쉬고 위로를 누리며 서로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입시 체제에서 아이들이 극도의 경쟁 속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대학을 가는지 미래의 행복한 삶과 연결지어 결과에 따라 스스로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고 소망을 잃은 아이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성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라는 세상의 요구와, 생명력과 생기와 호흡을 잃고 결과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

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남은 입시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3 졸업여행

12월 8일(금) - 9일(토) 1박 2일로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가람리조트에 고3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입시생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졸업여행을 통해 그동안 입시 준비로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고, 예배에는 출석했지만 서로 어색했던 관계들이 끈끈하게 연결되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고3 친구들에게 졸업여행이 '도움의 돌'과 같이 기억 속에 세워져 각자가 새롭게 걸어갈 고유한 삶의 길과 신앙의 여정에서 큰 힘과 격려가 되길 기도하고, 청년부에 진급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계원 전도사 / 고등부



국내선교위원회
군경선교부

주님 은혜로 군복음을 전하다

23년 한해도 주님의교회 국내선교위원회 군경선교부는 주님의 은혜로 군복음의 황금어장인 군부대에 찾아가 장병 진중세례식(6개 부대)과 기간장병 위문(2개 부대)후원을 하며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부대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동안 교회에서 찾아간 전방 사단 신병교육대대 6개 부대와 송파경찰서 등에서 600여명이 주님을 영접하였으며, 세례자에게는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책과 후원으로 햄버거 및 음료, 그리고 군 생활 중에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십자가 목걸이 등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부대별 상황에 맞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 분기 마지막 주일에는 교회에서 군 선교와 군 자녀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 부대와 장병들의 안전과 군 생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을 인격적으로 만나 선행 영향력을 끼치며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화)에는 군 자녀 및 전방 진중 세례 받은 장병들을 선별하여 성탄절 맛이 사랑을 담은 위문품(성경책, 좋은생각, 성탄카드, 핫팩, 핸드크림, 과자류 등)을 교회에서 준비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위문품을 받은 장병들은 동료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군 생활의 비타민과 같은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올해는 장기간의 코로나의 영향으로 각급 부대에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여 적은 인원이 복음을 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으나 점차 예배가 회복되어 내년에는 3월 16일 3사단 신병교육대대 진중세례식을 시작으로 7개 부대의 많은 장병들이 주님의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향수 안수집사 / 군경선교부



지난 항존직 임직 시 은퇴장로님의 권면의 말씀을 게재합니다. 이번에 임직한 항존직 뿐 아니라 모든 임직자 그리고 성도로서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글함글

권면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교회 장로와 안수집사 및 권사로 임직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로,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무와 마음가짐에 대하여는 피택자의 교육을 통하여 잘 배웠을 줄 압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교회 임직자로서 감당해야 할 주요 직무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을 주님의교회 임직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 이시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어떠한 자세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주님의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원만

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는 동시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도 더욱 분명해지고, 또 성령님께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승 은퇴장로

부임인사

두려움에서 설레임으로

샬롬~ 유년부와 어와나 스팅스를 담당하게 된 유소년숲 강요한 전도사입니다. 먼저 저를 주님의교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게 되면서 저에게는 기쁜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로 섬기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두려운 마음을 설레는 마음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만큼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요한 전도사 / 유소년숲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샬롬! 목양실 이왕현 전도사입니다. 올해부터 담임목사님의 목양사역을 주 사역으로 하며, 가정사역원(가정예배학교), 하나님의선교사역부를 돕게 되었습니다. 맡겨주신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주님과함께) 새벽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시작하겠습니다. 담임목사님의 목회가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조금 더 미리 준비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맡겨진 모든 관계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매 순간의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며, 주어진 자리가 당당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며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담임목사님의 목회를 최선을 다해 돕고,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목회자를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목양사역과 가정사역원, 하나님의선교사역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왕현 전도사 / 목양실, 가정사역원

(사)섬김과나눔
생명사랑 이웃사랑

희망을 담은 상자

(사)섬김과나눔의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중 하나인 희망상자 400개 중 136개를 (사)섬김과나눔 생활지원팀과 주님의교회 교역자, 성도들이 직접 나누어주었다. (사)섬김과나눔은 지역사회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기위해 2011년 주님의교회가 설립한 법인으로 '생명사랑 이웃사랑'은 성탄절 헌금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며 희망상자 제작 전달, 이웃사랑 공모사업 지원, 유관 사회복지시설(단체) 복지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함글함글



2023 전교인 설문조사 보고서

주님의교회에서는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전교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2018년 있었던 전교인 설문조사에 이은 5년 주기 설문조사로,
교회 내외부의 환경 변화와 교인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목회와 사역, 제도 개선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교인 신앙생활의 변화 양상과
교회의 중점 목회 방향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 시행 결과가 종합되어 지난 12월 17일 당회에 보고됨으로써, 1차적인 마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함글함글〉에서는 당회에 보고된 내용의 요약과, 문항별 응답률을 기록한 설문지를 이번 호에 모두 수록하여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와 함께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목적과 과정

2023 전교인 설문조사는 지난 2018년 전교인 설문조사 이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목회와 사역, 제도 개선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보편적인 설문조사의 과정은 문항의 작성 - 배포와 회수 - 코딩과 입력 - 통계치 추출 - 결과의 보정 - 분석과 해석 - 반영과 활용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보고는 생성된 전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항별 응답자 대비 응답률만을 단순 적용한 1차 분석내용으로, 가능한 문항에서는 2018년 결과와 2023년 결과를 대비하여 추세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좀더 심층적인 분석과 해석은 앞으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행 결과

설문지의 문항은 총 74문항으로, 교인 기본사항에 대하여 15문항,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하여 25문항, 신앙 생활에 대하여 15문항, 교회의 여러 제도와 시스템에 대하여 19문항이 배치되어, 공동체 구성원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018년과 달리 모바일 기반으로 시행되어, 10월 22일(주일) ~ 31일(화) 10일간 전화번호가 등록된 19세 이상 교인 7,774명에게 링크를 발송했으며, 고령자와 미등록교인을 위한 인쇄설문지는 10월 22일(주일)~ 29일(주일) 배포후 11월 5일(주일) 회수했습니다. 그 결과 2,279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29.3%를 기록했습니다. 10월 기준 교적부상 등록교인 8,981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25.3%입니다.

분석과 결과의 공유

설문조사의 시행 과정, 결과 및 가장 기본적인 개괄적인 분석 내용은 12월 17일 당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목회 및 정책 관련 통계가 필요할 경우 목적에 따라 응답자별 문항과 인접/유사 문항의 내용을 연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도출하여 목회와 사역, 제도 개선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산 데이터와 인쇄설문지 원본은 훼손과 멸실 방지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10년 이상 보존 자료로 취급하며, 파일 원본은 기밀 기록 자료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함글함글〉에서는 이후 다양하고 흥미로운 분석내용이 나오는 대로 교회 공동체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교인들의 삶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교인의 기본사항은 응답자의 기본적인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적부상 교인의 연령별, 성별 구성비와 응답자의 구성비에 약간 차이가 있으며, 5년 전과 변화된 양상이 보여 흥미롭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주님의교회 교인의 삶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인의 대부분이 강남, 송파구에 거주하지만 그 비율이 약간 감소했으며,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서울시의 인구통계와 비교해 50세 이상 연령층이 2018년 7%p, 2023년에는 8%p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기본 통계들은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다른 문항을 분석할 때 기본 정보로 활용될 것입니다.



60%

이번 응답자 가운데 2018년 설문조사 참여자

2018년과 2023년 두 번 다 참여하신 응답자 가운데에는 50대 이상이 85%나 되며, 항존직의 비율도 여 32%, 남 43%으로 높습니다.

62% ▶ 60%

자가용으로 교회에 온다

강남, 송파에 거주하는 교인이 63%이며, 자가용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62%에서 60%로 줄었으나 대중교통 이용자는 27%로 늘었습니다.

76% ▶ 85%

21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

31년 이상은 54%에서 68%로 늘었고, 11년~20년인 분들은 15%에서 11%로 줄었습니다. 세례받은 지 21년이 넘은 분들은 72%에서 78%로 늘었습니다.

51% ▶ 68%

주님의교회 등록 후 11년 이상이다

21년 이상 분들은 15%에서 30%로 늘었습니다. 응답자의 33%는 모태신앙이며, 본인이나 가족 가운데 정신학과 관계있는 분들은 23%입니다.

31% ▶ 26%

가사를 전담하고 있다

가사를 전담한다는 응답자가 31%에서 26%로 줄었습니다. 응답자의 64%는 직업을 갖고 있으며, 81%는 서울에 직장이나 학교가 있습니다.

22% ▶ 20%

가족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응답자가 22%에서 20%로, 경제적 어려움은 17%에서 11%로 줄었으며 건강의 어려움이 18%에서 21%로 늘었습니다.

창립 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특집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어울립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은 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예배, 모임, 사역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살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에 집중적으로 참석하시며, 2018년과 달리 3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주일예배에 매주 참석하는 응답자가 88%에서 63%감소한 대신, 코로나19 상황에서 익숙해진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 12%로 늘었습니다. 주일에 3시간 이상 교회에 머무르면서 친교와 사역을 하는 교인은 34%에서 29%로 줄었습니다.



33% ▶ 41%

주일 3부 예배를 드린다

2018년에는 교인 40%가 2부 예배에, 33%가 3부 예배에 참석했지만, 2023년에는 3부 예배 참석자가 41%로, 2부 예배 참석자가 36%로 바뀌었습니다.

88% ▶ 63%

교회 주일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코로나19 이후 교회 주일예배 참석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교인이 12%인데, 이유는 몸이 불편해서(17%), 익숙해져서(11%)입니다.

83% ▶ 88%

수요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주일예배 외에 다른 예배에 대한 참석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수요예배 불참자는 83%에서 88%, 새벽예배 불참자는 67%에서 73%로 늘었습니다.

41% ▶ 50%

겨자씨 모임에 매번 참석한다

매번 불참자는 43%에서 25%로 감소했습니다. 겨자씨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응답자는 35%인데, 원하지 않는 경우가 45%, 소속될 겨자씨를 몰라서가 21%입니다.

50% ▶ 61%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다

사역이나 봉사를 교인의 의무이며 사랑의 실천으로 보는 분이 69%에서 62%로 줄었고, 사역을 안 하는 분은 50%에서 61%로 늘었습니다.

68% ▶ 81%

주님의교회는 내게 주님이 인도하신 교회다

주님의교회가 주는 의미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신 교회가 68%에서 81%로 늘었고, 매달 규칙적 십일조 생활은 39%에서 36%로 줄었습니다.

창립 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특집

신앙생활은 이렇게 합니다

신앙에 대한 문항들은 교회 안팎에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신앙에 대하여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삶의 전부이자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2018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했음을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지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의미를 일상에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 복음에 따라 이웃을 섬기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 ▶ 74%

신앙생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신앙이 삶의 전부인 분이 42%에서 41%로, 신앙에 따라 사회생활을 하는 분이 34%에서 33%으로 줄었으며, 사회생활과 조화 필요가 22%에서 24%로 늘었습니다.

83% ▶ 87%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했다

응답자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한 분이 83%에서 87%로 늘었으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응답자도 87%입니다.

50% ▶ 55%

성경을 스스로 읽는다

성경을 생활의 지침으로 여기는 응답자가 75%에서 79%로 늘었으며, 주 1~2회 이상 성경을 읽는 분은 50%에서 55%로 늘었습니다.

43% ▶ 44%

신앙을 이끌어 주는 분이 있다

교회에 목회자 외에 신앙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가 43%에서 44%로 늘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도 30%입니다.

85%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한다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응답자는 85%이며, 주님의 도구가 되어 복음에 따라 이웃을 섬기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은 69%입니다.

14%

은퇴 후 결심한 사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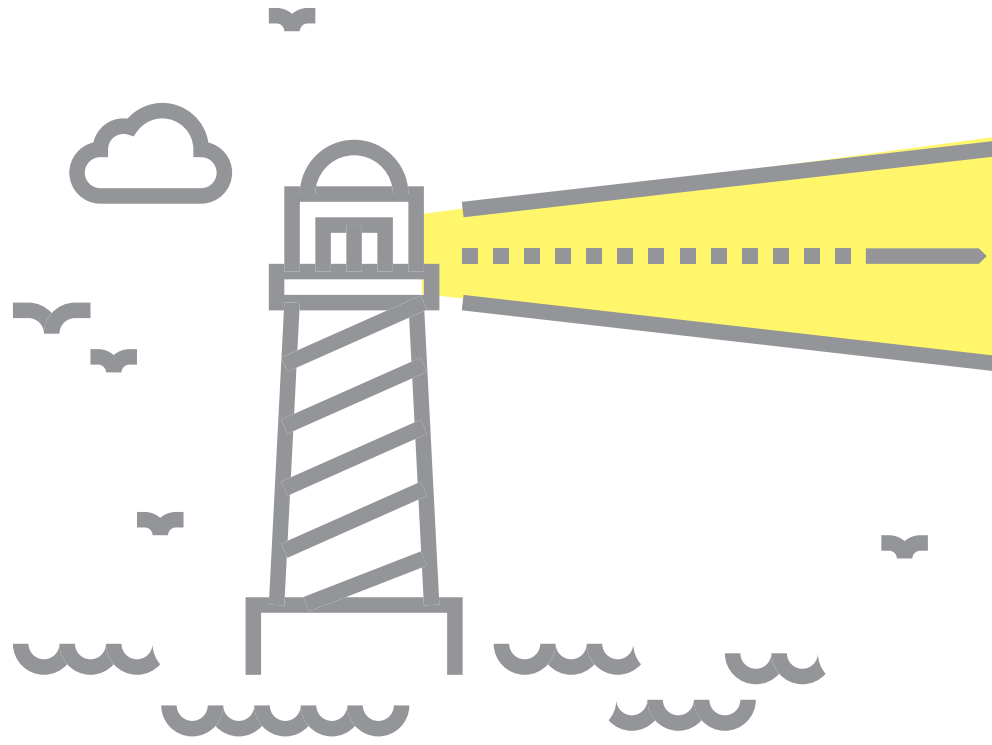
은퇴 후 교회 밖에서 계속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역이 있다는 응답자가 14%, 고심중이며 찾으면 반드시 실행하려는 분은 29%입니다.

창립 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특집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문항들은 교회 창립정신의 실천부터 사역의 여러 국면들, 다양한 교회 내 정보 소통 방식, 새가족에 대한 안내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주님의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사회봉사·구제·선교에 힘쓰는 것을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어 창립 정신 가운데 가장 공감하는 원칙은 50:50이었으며, 여전히 청소년 사역에 핵심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교회생활에 대한 정보는 주로 주보에서 얻으며,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목회자에게 알리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34% ▶ 35%

사회봉사 · 구제 · 선교가 큰 장점이다

주님의교회의 가장 큰 장점으로 사회봉사·구제·선교를 꼽은 응답자가 34%에서 35%로 늘었고, 거룩한 예배가 24%에서 17%로 줄었습니다.

42% ▶ 47%

50:50이 가장 공감하는 창립정신이다

4대 원칙 중 재정의 5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는 정신이 42%에서 47%로 증가했고, 임기제에 대한 공감이 26%에서 22%로 줄었습니다.

63% ▶ 58%

청소년 사역에 핵심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 사역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자는 의견이 63%에서 58%로 줄었으나 가장 강조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구제 18%, 선교 15%입니다.

20% ▶ 32%

어려움이 있을 때, 목회자에게 알린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목회자에게 알리는 경우가 20%에서 32%로 증가했고, 겨자씨 인도자나 권찰에게 알리는 분들이 33%에서 20%로 줄었습니다.

56% ▶ 48%

교회생활 정보는 주로 주보에서 얻는다

교회생활에 대한 정보를 주보에서 얻는 응답자가 56%에서 48%로, 겨자씨나 아는 교인에게서 얻는 경우가 29%에서 22%로 감소한 대신, 영상뉴스 13%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31% ▶ 25%

설교를 듣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설교를 듣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응답자가 31%에서 25%로 줄었고, 교회생활 정보를 얻기 위한 경우가 17%에서 21%로 늘었습니다.

I. 교인 기본사항에 대하여 (15문항)

교회와 관련하여, 교인의 기본적인 신상에 대해 묻는 설문 영역입니다. 각 문항 아래에는 문항별 응답률을 밝혔습니다.

[I-1] 귀하는 2018년 창립 30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셨습니까? [필수문항]

- ① 예

59.8 %
- ② 아니요

40.2 %

[I-2] 귀하의 연령은 작성일 현재, 만 나이 기준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필수문항]

- ① 19~29세

2.0%
- ② 30~39세

5.9%
- ③ 40~49세

16.3%
- ④ 50~60세

23.9%
- ⑤ 61~65세

17.4%
- ⑥ 66~75세

26.4%
- ⑦ 76세 이상

8.0%

[I-3] 귀하의 성별을 말씀해 주십시오. [필수문항]

- ① 여

63.6%
- ② 남

36.4%

[I-4] 귀하가 실제로 거주하시는 곳을 말씀해 주십시오. [필수문항]

- ① 송파구, 강남구

62.7%
- ② 서초구, 광진구, 강동구

9.9%
- ③ 용산구, 영등포구, 성동구, 마포구

3.2%
- ④ 경기도 분당, 죽전, 용인, 평촌

6.1%
- ⑤ 서울의 나머지 구,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다른 지역

18.0%

[I-5] 귀하가 보통 주일 교회에 오기 위해 택하는 교통편은 무엇인지요? [필수문항]

- ① 도보(또는 자전거)

12.6%
- ②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26.5%
- ③ 택시

0.6%
- ④ 자가용

60.2%

[I-6] 귀하는 모태 신앙인이십니까? [필수문항]

- ① 예

33.0%
- ② 아니요

67.0%

[I-7] 작성일 기준, 귀하의 신앙생활 기간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필수문항]

- ① 1~3년

0.8%
- ② 4~6년

0.7%
- ③ 7~10년

3.2%
- ④ 11~20년

10.7%
- ⑤ 21~30년

16.8%
- ⑥ 31년 이상

67.9%

[I-8] 세례를 받은 후의 신앙생활 기간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필수문항]

- ① 1~3년

1.2%
- ② 4~6년

1.6%
- ③ 7~10년

4.2%
- ④ 11~20년

13.3%
- ⑤ 21~30년

23.6%
- ⑥ 31년 이상

54.1%
- ⑦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음

2.0%

[I-9] 전 교회를 포함하여 귀하의 직분은 무엇인가요? [필수문항]

- ① 성도

23.2%
- ② 서리집사

49.6%
- ③ 향존직(장로, 권사, 안수집사)

20.5%
- ④ 은퇴 향존직(은퇴장로, 은퇴권사, 은퇴안수집사)

6.7%

[I-10] 주님의교회에 등록하신 후 기간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필수문항]

- ① 현재 미등록 상태

0.4%
- ② 1~3년

7.1%
- ③ 4~6년

8.8%
- ④ 7~10년

15.5%
- ⑤ 11~20년

38.6%
- ⑥ 21~35년

29.6%

[I-11] 현재 미등록인 상태로 주님의교회를 다니고 있는 경우, 주님의교회에 출석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선택문항]

- ① 1년 이내

16.7%
- ② 2년 이내

0.0%
- ③ 3년 이내

4.2%
- ④ 4년 이내

4.2%
- ⑤ 5년 이내

12.5%
- ⑥ 5년 이상

62.5%

[I-12] 귀하의 직업(정년 퇴직하신 분은 전 직업)을 아래 분류에 따라 구분한다면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필수문항]

- ① 일반 기업에 재직

19.6%
- ②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재직

7.3%
- ③ 교육자

14.6%
- ④ 전문직, 자영업이나 개인회사 운영

17.9%
- ⑤ 프리랜서

4.5%
- ⑥ 가사 전담

26.1%
- ⑦ 학생

1.4%
- ⑧ 기타

8.6%

[I-13] 귀하의 직장이나 학교 등이 위치한 곳은 어디인지요? 퇴직하신 분은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택문항]

- ① 서울

80.8%
- ② 비서울

19.2%

[I-14] 귀하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으로 정신학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필수문항]

- ① 예

22.9%
- ② 아니오

77.1%

[I-15] 현재 귀하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필수문항]

- ① 경제적 어려움

11.2%
- ② 사회생활 속의 여러 경쟁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8.2%
- ③ 건강에서 오는 어려움

21.1%
- ④ (직장, 학교, 교회 등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7.3%
- ⑤ 자녀, 가족 및 친척 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19.7%
- ⑥ 신앙적 어려움

8.9%
- ⑦ 기타

23.5%



II. 교회생활에 대하여 (25문항)

교회와 관련하여, 교인이 교회에서 하는 생활에 대해 묻는 설문 영역입니다. 각 문항 아래에는 문항별 응답률을 밝혔습니다.

[II-1] 귀하가 주로 참석하는 주일예배는 몇 부인가요? [필수문항]

- | | | | | |
|-------------|-------------|--------------|--------------|--------------|
| ① 1부 (7:00) | ② 2부 (9:00) | ③ 3부 (11:00) | ④ 4부 (13:00) | ⑤ 5부 (14:30) |
| 13.8% | 35.8% | 40.8% | 7.2% | 2.3% |

[II-2] 귀하가 주로 주일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필수문항]

- | | | |
|--------|----------------------|--------------|
| ① 대예배실 | ② 교회 내 영상 예배(중예배실 등) | ③ 실시간 온라인 예배 |
| 77.2% | 10.7% | 12.1% |

[II-3] 귀하는 보통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주일예배에 얼마나 참석하시는지요? [필수문항]

- | | | | |
|---------|--------------|--------------|--------------|
| ① 매주 참석 | ② 월 3회 이상 참석 | ③ 월 2회 정도 참석 | ④ 월 1회 정도 참석 |
| 63.3% | 16.5% | 7.7% | 12.5% |

[II-4] 주일예배에 불참하는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택문항]

- | | | | | |
|-------------|---------------|---------|-----------|-------|
| ① 직장, 학업 문제 | ② 집안 및 지인 경조사 | ③ 해외 출장 | ④ 여행 및 레저 | ⑤ 기타 |
| 8.9% | 27.9% | 4.5% | 21.8% | 36.9% |

※ 주일예배를 주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고 하신 분들만 답하세요.

[II-5]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부득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택문항]

- | | | | | |
|-----------|-----------|----------------|---------|-------|
| ① 몸이 불편해서 | ② 교회가 멀어서 | ③ 주일에도 근무를 하므로 | ④ 익숙해져서 | ⑤ 기타 |
| 16.8% | 9.4% | 4.6% | 11.2% | 57.9% |

※ 주일예배를 주로 교회에서 드리고 있다고 하신 분들만 답하세요.

[II-6] 귀하가 주일에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되는지요? [선택문항]

- | | | |
|--------------------|------------------------|-----------------------------|
| ① 예배 참석을 위해 1시간 정도 | ② 예배 참석과 친교를 위해 2시간 정도 | ③ 예배 참석과 사역 및 봉사를 위해 3시간 이상 |
| 48.0% | 22.6% | 29.4% |

[II-7] 귀하는 수요기도회에 얼마나 참석하시는지요? [필수문항]

- | | | | | |
|---------|--------------|--------------|--------------|-----------|
| ① 매주 참석 | ② 월 3회 이상 참석 | ③ 월 2회 정도 참석 | ④ 월 1회 정도 참석 | ⑤ 참석하지 않음 |
| 3.4% | 1.8% | 1.9% | 5.3% | 87.6% |

[II-8] 수요기도회에 불참하는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택문항]

- | | | | | | |
|---------------|---------------|------------|----------|---------|-------|
| ① 직장 또는 학업 문제 | ② 해외 또는 지방 출장 | ③ 다른 일과 중복 | ④ 불편한 교통 | ⑤ 몸이 피곤 | ⑥ 기타 |
| 23.9% | 0.6% | 17.9% | 8.6% | 12.9% | 36.0% |

[II-9] 귀하는 새벽예배에 얼마나 참석하시는지요? [필수문항]

- | | | | | |
|------------|--------------|--------------|---------------|---------|
| ① 거의 매일 참석 | ② 주 2회 이상 참석 | ③ 주 1회 정도 참석 | ④ 특별 절기 때만 참석 | ⑤ 거의 불참 |
| 7.0% | 2.5% | 1.5% | 16.3% | 72.7% |

[II-10] 새벽예배에 불참하는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택문항]

- | | | | | | |
|---------------|---------------|------------|----------|---------|-------|
| ① 직장 또는 학업 문제 | ② 해외 또는 지방 출장 | ③ 다른 일과 중복 | ④ 불편한 교통 | ⑤ 몸이 피곤 | ⑥ 기타 |
| 16.6% | 0.6% | 5.6% | 13.8% | 31.7% | 31.6% |

[II-11] 귀하는 현재 주님의교회 겨자씨모임에 소속되어있나요? [필수문항]

① 예 ② 아니요

65.2% 34.8%

※ 현재 주님의교회 겨자씨모임에 소속되어있지 않다고 하신 분들만 답하세요.

[II-12] 겨자씨모임에 소속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택문항]

① 소속될 만한 겨자씨를 몰라서 ② 소속되었던 겨자씨가 없어져서 ③ 겨자씨모임을 원치 않아서 ④ 기타

20.9%

6.6%

45.2%

27.3%

※ 현재 주님의교회 겨자씨모임에 소속되어있다고 하신 분들만 답하세요.

[II-13] 귀하는 겨자씨모임에 얼마나 참석하시는지요? [선택문항]

① 모임 때 매번 참석 ② 모임 때 간혹 불참 ③ 모임 때 절반 이상 불참 ④ 모임 때 매번 불참

49.5%

18.8%

7.0%

24.6%

[II-14] 귀하가 생각하는 교회에서의 사역 또는 봉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필수문항]

① 교인으로서 의무 ② 이웃사랑의 실천 기회 ③ 교회의 운영에 기여 ④ 믿음 훈련의 기회 ⑤ 은사 개발을 위해

29.3%

33.1%

7.5%

28.0%

2.2%

[II-15] 귀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문항]

① 사역 종류에 따라 다르다 ② 대부분 전문성이 필요하다 ③ 전문성이 없어도 배워가면서 하면 된다 ④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불필요하다

58.3%

5.6%

28.4%

3.3%

⑤ 교회 사역은 전문성과 전혀 상관이 없다

4.5%

[II-16] 귀하는 주님의교회 사역부서에 속하여 활동하고 있는지요? [필수문항]

① 사역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다 ② 사역부서에 속해 있지 않다

39.0%

61.0%

※ 현재 속하여 활동하는 사역부서가 없는 분들만 답하세요.

[II-17] 사역을 안 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택문항]

① 어떤 사역이 있는지 몰라서 ② 나에게 맞는 사역을 못 찾아서 ③ 개인 사정으로 ④ 거주지가 교회와 너무 멀어서 ⑤ 기타

2.7%

9.3%

47.7%

12.6%

27.7%

※ 현재 속하여 활동하는 사역부서가 있는 분들만 답하세요.

[II-18] 귀하는 현재 주님의교회에서 몇 개의 사역부서에 속하여 활동하고 계십니까? [선택문항]

① 1개 ② 2~3개 ③ 4개 이상

59.5%

34.8%

5.6%

[II-19] 귀하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주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선택문항]

① 해당 사역팀의 권유로 ② 목회자의 권유로 ③ 겨자씨모임 식구의 권유로 ④ 사역박람회를 통해서 ⑤ 내가 찾아서 ⑥ 어쩌다 보니

29.4%

3.0%

8.0%

5.2%

47.6%

6.7%

[II-20] 귀하는 양육프로그램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시는지요? [필수문항]

- ① 1년에 4 프로그램 이상 ② 1년에 2 프로그램 정도 ③ 2년에 1 프로그램 정도 ④ 참여하지 않음
- 2.8% 16.0% 14.6% 66.6%

※ 현재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답하세요.

[II-21] 귀하는 어떤 동기로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십니까? [선택문항]

- ① 은혜를 받기 위하여 ② 성경 지식의 향상 ③ 교양을 쌓기 위하여 ④ 친교나 친목을 위하여
- 37.8% 54.2% 2.0% 5.9%

※ 현재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만 답하세요.

[II-22]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택문항]

- 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 ②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못 찾아서 ③ 개인 사정으로 ④ 거주지가 교회와 너무 멀어서 ⑤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⑥ 기타
- 4.9% 10.6% 42.0% 11.7% 10.1% 20.6%

[II-23] 귀하는 주님의교회에서 십일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필수문항]

- ① 매달 규칙적으로 한다 ② 한두 번 빠질 때도 있다 ③ 드문드문 한다 ④ 거의 하지 못한다 ⑤ 인연이 있는 다른 교회에 하고 있다
- 35.9% 6.2% 14.7% 37.2% 6.0%

[II-24] 귀하는 주님의교회에서 하나님의 선교 약정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필수문항]

- ① 매달 규칙적으로 한다 ② 한두 번 빠질 때도 있다 ③ 드문드문 한다 ④ 거의 하지 못한다 ⑤ 별도의 선교 후원을 하고 있다
- 27.3% 2.6% 11.6% 44.1% 14.4%

[II-25] 주님의교회가 귀하에게 주는 의미 중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2개만 선택해주십시오. [필수문항]

- ① 집과 가까이 있는 교회 ② 주님이 인도하신 교회 ③ 나의 교회 ④ 내 친척, 가족, 친구 등을 대신할 교회 ⑤ 나의 노후와 죽음까지 생각하는 교회
- 26.7% 81.1% 54.6% 8.2% 14.5%
- ⑥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 13.1%



III. 신앙생활에 대하여 (15문항)

교회를 포함한 일상에서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 묻는 설문 영역입니다. 각 문항 아래에는 문항별 응답률을 밝혔습니다.

[III-1] 귀하에게 신앙생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필수문항]

- ①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41.0%**
- ② 내 삶의 기초이므로 이에 따라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32.9%**
- ③ 중요하지만 사회생활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3.6%**
- ④ 신앙과 사회생활은 별개이다 **1.2%**
- ⑤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1.3%**

[III-2] 귀하는 신앙생활에서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문항]

- 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죄를 짓지 않는 생활 **10.3%**
- ②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57.3%**
- ③ 나와 내 가족, 나아가 내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 모든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생활 **12.1%**
- ④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생활 **19.0%**
- ⑤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1.2%**

[III-3] 귀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필수문항]

- ① 매우 그렇다 **45.0%**
- ② 그렇다 **41.6%**
- ③ 보통이다 **10.6%**
- ④ 그렇지 않다 **2.1%**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0.7%**

[III-4] 귀하는 매순간 하나님께서 귀하와 동행하신다고 믿습니까? [필수문항]

- ① 매우 그렇다 **40.5%**
- ② 그렇다 **46.9%**
- ③ 보통이다 **11.3%**
- ④ 그렇지 않다 **1.1%**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0.2%**

[III-5] 귀하는 성경 말씀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문항]

- ① 매우 그렇다 **33.2%**
- ② 그렇다 **46.1%**
- ③ 보통이다 **18.0%**
- ④ 그렇지 않다 **2.4%**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0.3%**

[III-6] 귀하는 평소에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계십니까? [필수문항]

- ① 매일 **36.5%**
- ② 주 1~2회 **18.2%**
- ③ 월 1~2회 **6.2%**
- ④ 비정기적으로 아주 드물게 **28.7%**
- ⑤ 거의 읽지 않는다 **10.4%**

[III-7] 귀하는 평소에 성경 외의 신앙 관련 매체(예, 서적이나 영상자료 등)를 자주 접하시나요? [필수문항]

- ① 매일 **22.4%**
- ② 주 1~2회 **20.9%**
- ③ 월 1~2회 **11.7%**
- ④ 비정기적으로 아주 드물게 **31.8%**
- ⑤ 거의 접하지 않는다 **13.2%**

[III-8] 주님의교회에는 신앙 속에서 귀하를 이끌어주는, (목회자 외의)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문항]

- ① 매우 그렇다 **11.1%**
- ② 그렇다 **32.5%**
- ③ 보통이다 **26.7%**
- ④ 그렇지 않다 **23.6%**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1%**

[III-9] 귀하는 일상에서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있으신지요? [필수문항]

- ① 회사 신우회 **2.2%**
- ② 교회 내 신앙모임 **26.6%**
- ③ 교회 외 신앙모임 **8.3%**
- ④ 기독교 단체 **2.8%**
- ⑤ 참여하는 모임 없음 **60.0%**

창립 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특집

[III-10] 귀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필수문항]

- 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25.0% ②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60.2% ③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다 11.5% ④ 큰 관심이 없다 2.5% ⑤ 들어본 적이 없다 0.7%

[III-11] 귀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필수문항]

- ① 교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해외 선교 활동을 좀더 강화하거나, 선교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여 전 지구적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8.5%
 ② 일상에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 복음에 따라 이웃을 섬기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68.9%
 ③ 교회에서 주도하는 선교와 사역 활동에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6.8%
 ④ 일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선교와 전도 활동을 실행하는 것이다 12.0%
 ⑤ 잘 모르겠다 3.8%

[III-12] 귀하는 기존 선교에 대해 '하나님의 선교'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필수문항]

- ①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기존 선교 개념의 확장은 꼭 필요하다 47.8%
 ② 기존의 선교에 대해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 17.0%
 ③ '하나님의 선교'와 기존 선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32.1%
 ④ 필요하지 않다(기존 선교로 충분하다) 3.0%

[III-13] 귀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무엇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문항]

- ① 기존 선교사 매칭과 지원 활성화 10.5%
 ② 지역사회 필요(예, 불우 이웃 돕기, 쓰레기 줍기, 자연보호 등)를 조사하고 봉사에 참여 22.4%
 ③ 일상에서 개인의 구별되고 윤리적인 삶 27.6%
 ④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 32.8%
 ⑤ 잘 모르겠다 6.7%

[III-14] 귀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는 다음 중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문항]

- ① 가정 47.6% ② 일터 24.4% ③ 교회 14.0% ④ 사역 현장 11.0% ⑤ 국내외 선교지 2.9%

[III-15] 귀하는 은퇴 후에 교회 안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계속 헌신하고 싶으신 사역이 있습니까? [선택문항]

- ① 결심한 사역이 있다 14.2%
 ② 현재 고심 중인데 찾으면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29.3%
 ③ 현재 고심 중인데 찾아도 실행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30.2%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26.3%



IV. 교회의 여러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하여 (19문항)

주님의교회의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하여 평소에 느끼는 바를 묻는 설문 영역입니다. 각 문항 아래에는 문항별 응답률을 밝혔습니다.

[IV-1] 귀하는 주님의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문항]

- | | | | | | | |
|----------------------|--------------|-----------------|----------|----------|-----------------|--------------|
| ① 강한 리더십 | ② 은사 중심의 사역 | ③ 성령 충만 | ④ 효율적 체계 | ⑤ 거룩한 예배 | ⑥ 소그룹(겨자씨모임) 중심 | ⑦ 사랑이 넘치는 친교 |
| 0.6% | 2.8% | 5.7% | 11.6% | 17.0% | 3.1% | 2.3% |
| ⑧ 사회봉사 · 구제 · 선교에 힘씀 | ⑨ 잘 짜여진 신앙교육 | ⑩ 특별한 장점을 못 찾겠음 | ⑪ 기타 | | | |
| 34.6% | 5.1% | 10.9% | 6.3% | | | |

[IV-2] 귀하가 주님의교회의 여러 제도(창립정신) 중 가장 공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필수문항]

- | | | | |
|-----------------------|----------|----------|-----------------|
| ① 재정의 50%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 | ② 무기명 헌금 | ③ 건물 무소유 | ④ 목회자와 중직자의 임기제 |
| 46.8% | 16.0% | 15.4% | 21.8% |

[IV-3] 위 문항에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문항]

- | | | | |
|------------------|------------------------|--------------------|-----------------------|
| ① 다른 교회와 달라서 | ② 교회의 순수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 ③ 교회가 나빠질 것 같지 않아서 | ④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문제가 많아서 |
| 15.8% | 40.5% | 9.9% | 6.9% |
| ⑤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 | | |
| 27.0% | | | |

[IV-4] 주님의교회는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사역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문항]

- | | | | |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 7.7% | 36.5% | 41.8% | 11.4% | 2.6% |

[IV-5] 주님의교회는 사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에 열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문항]

- | | | | |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 8.3% | 40.7% | 39.1% | 9.6% | 2.3% |

[IV-6] 귀하는 주님의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앞으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문항]

- | | | | |
|-------|-------|----------|------|
| ① 선교 | ② 구제 | ③ 청소년 사역 | ④ 기타 |
| 15.0% | 17.7% | 57.5% | 9.8% |

[IV-7] 주님의교회가 정신학교 안에 위치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2개만 선택해주십시오. [필수문항]

- | | | | | |
|----------|----------|------------------|-----------|-----------|
| ① 건물 무소유 | ② 청소년 선교 | ③ 교회행사와 주일학교 운동장 | ④ 넉넉한 주차장 | ⑤ 학교와의 관계 |
| 78.8% | 58.6% | 24.9% | 27.6% | 9.3% |

[IV-8] 주님의교회가 학원선교를 위해 꼭 해야 한다고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수문항]

- | | | | | |
|-----------|---------|---------------|--------------|--------------|
| ① 소통창구 마련 | ② 홍보 강화 | ③ 청소년 찬양예배 시행 | ④ 어머니 기도회 참여 | ⑤ 기타 프로그램 개발 |
| 40.6% | 7.0% | 21.8% | 7.5% | 23.1% |

[IV-9] 귀하가 주님의교회에서 교회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통로는 무엇인가요? [필수문항]

- | | | | | | | |
|-------|--------------|---------------|-------|--------|--------|--------|
| ① 목회자 | ② 겨자씨나 아는 교인 | ③ 사무실이나 교회 직원 | ④ 주보 | ⑤ 함글함글 | ⑥ 홈페이지 | ⑦ 영상뉴스 |
| 9.9% | 21.5% | 0.3% | 47.8% | 4.3% | 3.5% | 12.6% |

[IV-10] 주님의교회는 귀하가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문항]

- | | | | |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 3.3% | 20.7% | 49.0% | 21.6% | 5.4% |

[IV-11] 귀하가 겪는 어려움을 교회에 알리고자 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필수문항]

- ① 담임목사 또는 교구목사에게 알린다 32.0% ② 중직자에게 알린다. 3.5% ③ 기도카드를 작성하여 중보기도를 요청한다 18.5% ④ 겨자씨 또는 봉사부서에 알린다 20.3%
- ⑤ 교회에 알고 지내는 교우에게 알린다 19.1% ⑥ 사무실에 문의한다 6.7%

[IV-12] 주님의교회는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문항]

- ① 매우 그렇다 6.7% ② 그렇다 43.3% ③ 보통이다 42.8% ④ 그렇지 않다 6.2% ⑤ 매우 그렇지 않다 0.9%

[IV-13] 주님의교회는 지도자와 성도 간에 소통의 장과 통로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문항]

- ① 매우 그렇다 5.2% ② 그렇다 34.2% ③ 보통이다 43.1% ④ 그렇지 않다 13.7%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8%

[IV-14] 주님의교회는 처음 등록한 새 가족이 쉽게 교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문항]

- ① 매우 그렇다 5.5% ② 그렇다 32.8% ③ 보통이다 42.5% ④ 그렇지 않다 15.2%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0%

[IV-15] 귀하는 주님의교회의 여러 부서가 건물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필수문항]

- ① 매우 그렇다 8.2% ② 그렇다 26.7% ③ 보통이다 36.8% ④ 그렇지 않다 23.9%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5%

[IV-16] 귀하가 주님의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문항]

- ① 교회 생활 정보를 얻기 위해 20.5% ② 설교를 듣기 위해 25.2% ③ 행정 처리를 위해 14.1% ④ 교회 소식을 보기 위해 27.1% ⑤ 후보나 <함줄함울>을 보기 위해 10.2%
- ⑥ 큐티를 보기 위해 2.9%

[IV-17] 귀하는 주님의교회 신문인 <함줄함울>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문항]

- ① 신앙적 지식과 상식의 전달 매체 15.4% ② 목회자 메시지와 교회 행사 등 교회 동정을 알리는 소식지 52.7% ③ 교회 역사의 기록과 보관 매체 4.0% ④ 교인의 일상을 전하는 소통과 친교의 창구 27.9%

[IV-18] 이번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필수문항]

- ① 설문조사는 교인들의 상황과 의견을 교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51.7% ② 설문조사의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설문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37.1% ③ 설문조사는 단발성 행사로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 8.9% ④ 기타 2.3%

[IV-19] 앞의 문항 외에 특별히 답하고 싶거나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택문항]

전체 2,279명의 응답자 가운데 492명(21.6%)이 자유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의견을 중심으로 원문의 표현과 관계 없이 주제별로 정리했으며, 교회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아이디어는 한두 번의 빈도일 경우에도 요약에 포함했습니다.

교회 비전과 미래에 대하여

-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를
- 어린이, 청소년, 청년에 대한 사역 집중 및 대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 창립정신 중 50:50은 유연하게 적용하여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 평신도를 세우는 체계적인 영성훈련과정,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양육 프로그램 필요
- 성도 방임형 교회에서 탈피하기를
-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확실한 비전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
- 정신학원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확대되기를
- 다양한 가정(다문화, 한가정부모, 이혼가정 등등)이 공존할 수 있는 교회

시설 보완의 문제

- 1부 예배 후에도 국수가 제공되기를 바람
- 설교 발음이 명료하게 전달되도록 예배당 음향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실만한 물가' 처럼 늘어나는 고령자와 청소년을 위한 휴식 교제 공간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언제든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원함
- 주방 국수 제공과 김치 배분 등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할 때 외부 인력을 사용해서라도 편의성을 높이기를 바람
- 소통의 통로로 건의함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제도 보완의 문제

- 교인들의 영성훈련과 코이노니아강화, 섬김 받기보다 섬김 우선 교인 교육
- 주일 저녁예배와 금요 철야예배 필요
- 영어설교 동영상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기를
- 중고등부 예배를 3부예배와 동일한 시간인 11시에 마련, 성장기 청소년 연속성 유지
- 성도와 교역자 간 의사소통의 통로 부족하며, 건의 사항이 교회에서 잘 반영되지 않음
- 마더와이즈 등 양육프로그램이 평일에 있어 직장인 참석 어려우므로 토요 오전 편성 요망
- 장기사역자, 젊은 층 선출될 수 있도록 향존직 선거 제도 개선, 섬김 우선 체계적 향존직 교육
- 교회 운영의 대부분이 장년과 시니어 위주로 운영되는 느낌
- 새가족교육 교재는 신앙의 단계적 고려 필요, 교육 완료시 적당한 사역과 겨자씨 참여 권유

겨자씨와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 새 신자 안내, 겨자씨 연결, 사역과 봉사 안내 등 부족
- 맞벌이 40~50대 직장인들을 위한 겨자씨 등 겨자씨 모임 개혁과 변화, 활성화 필요

- 소그룹공동체인 겨자씨 인도자 발굴 시스템 만들고, 교육 충실성높일 필요
- 교인간 친교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친교나 참여 소통을 원할 때 빠른 안내
- 남자 성도들을 위한 모임과 기도 모임 등 적극적으로 홍보 요망
- 변화하는 가계구조(1인 가구, 돌싱가구 등)에 맞는 다양한 층의 훈련, 모임 필요
- 평일 낮 어머니 기도회 신설

사역과 봉사에 대하여

- 사역의 종류가 너무 많아 선택과 집중 필요
- 중복 봉사자 줄이고, 1인 1사역 적극 권장
- 사역과 봉사 형식적인 경우 많으며, 사역과 봉사 중 학연과 지연, 경제적 차별 등 보임
- 모든 부서 활동의 매뉴얼화 필요
- 환경 문제 심각성 고려, 로비 커피 제공 시 개인컵 사용토록 권장
- 교회학교 교사부족 타개 위해 신임 향존직 필수적 교육부서에 의무봉사 기간 지정
- 교회에서부터 악자를 돕고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쳐야 요망

예배와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 예배 중 핸드폰 소리 없앨 수 있기를
- 예배시작 찬양, 파송 찬양 주기적 교체 요망, 찬양 시 두 손 드는 의례 부자연스러움
- 예배 중 찬양 후 박수치는 것, 성경과 어긋나는 관용적 표현(보혈의 피 등) 자제 요망
- 영상뉴스와 담임목사님 광고가 겹치며, 영상뉴스가 예배 몰입도를 해치므로 설교 후에
- 새벽예배, 새벽기도 때 통성 가능하도록 허용
- 침묵으로 하는 참회 기도는 최소 1분의 시간을 주기를
- 성찬 시 떡과 포도주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 청년부 예배의 활성화와 예배시간 변경 필요

목회자와 향존직에 대하여

- 대심방과 같은 목회자와의 대화의 기회 및 교역자 전화 심방 활성화로 접촉 기회 늘리기를
- 주님의교회 특성에 맞는 설교와 교육, 깊이 있는 설교, 삶에 영향을 주는 설교 원함
- 장로교단 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설교 필요
- 교구목사와 더 밀접한 관계 형성 원하지만 담당하는 사역들이 많아 교인과의 소통 어려움
- 부목사 설교의 확대 및 임기 10년으로 연장하여 교인과 유대감 깊도록
- 삶의 현장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설교와 인도

2023 성탄가족예배

하나님의 선교가 있다 - 우리를 잇다

올해 성탄가족예배는 지난 12월 24일 오후 1시 대예배실에서 유아숲 3개부서, 유소년숲 5개 부서, 청소년숲 1개부서 총 9개 부서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있다-우리를 잇다’라는 주제로 드린 올해 성탄가족예배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과 우리를 잇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

의 사랑이 주님의교회와 세대를 잇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우리 교회 초창기 성탄가족예배와 현재를 잇는 콘셉트로 각 부서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렸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숲



2023 성탄음악예배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칸타타 공연이 끝나고 무대 위로 김화수 담임목사님께서 축도를 하기 위해 올라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주님의교회에서 부목사로 여섯 번, 담임목사로 일곱 번. 도합 열세 번의 칸타타 공연 중 이번 공연이 가장 감동스러웠다는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음뿔’이 된 것처럼 온몸이 녹아내리면서 신록으로 눈부셨던 사월의 어느 날 존 루터의 글로리아 악보 책을 펼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조건으로 노래를 불러 본 후 장탄식과 더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찬양대 경력이 대부분 10년은 기본이고 20년이 훌쩍 넘는 분들이셨지만 존 루터의 ‘글로리아’는 모두 처음 불러본 찬양이기 때문이었고 김화수 목사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칸타타 중에 고난도에 속하는 찬양이라 잘하면 대박이겠지만 그보다는 쪽박 차기 십상이겠구나 눈치를 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야 대원 모두가 12월 공연을 4월부터 서둘러 연습을 시작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이 어려운 곡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이렇게 어려운 곡을 불러야 하는가 선곡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태경 지휘자님께서서는 여러 번 이 곡을 공연한 경험이 있으셨고 호산나 찬양대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대원들을 다독이며 설득하셨습니다.

만우절 다음날부터 성탄절까지 8개월간 매주 반복해서 칸타타 연습과 캐럴 6곡 그리고 주일 찬양까지 강행군을 이어갔지만 워낙 어려운 곡이라 완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특히 네 파트 모두 편안함 음역대가 아닌 고음을 내야 해서 심지어 소프라노 솔리스트의 경우 연습을 마치고 나면 하루 정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테너와 베이스도 고음을 내야 하는 경우 팔세로 창법으로 불러야 하니 모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박자의 변화가 급격하여 네 파트가 템포가 맞지 않아 같은 곡을 부르는데 제각각 끝나기도 하여 마치 돌림노래가 되니 어이가 없어 박장대소하며 웃기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 사태를 보다 못한 정미란 부지휘자님께서서는 자원하여 족집게 과외를 제안하셨고 안되는 부분을 따로 남아서 파트별로 집중 연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습은 연습대로 그렇게 매주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음악위원회 서정하



장로님의 주관으로 대책 회의가 매달 열렸습니다. 이대혁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의가 시작되었고 참석자는 민태경 지휘자님을 비롯하여 주오오케스트라와 중고등부 오케스트라 그리고 공연 전체를 조율하고 감독해 줄 김유경 무대감독이 참석하여 각자 맡은 역할과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채워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그때를 돌이켜 보니 칸타타 연습과 대책 회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서로를 끌어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호산나 찬양대가 주관부서로 칸타타를 기획하면서 늘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모든 부서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일을 해나가는 중에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안정수 단무팀장님과 장태성 음향간사님 이영신 영상간사님 그리고 포스터와 순서지를 만들어 주신 오지연 디자인간사님에게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또한 리허설날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차출되어 자막일을 맡아 수고해주신 박종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님께서서는 본인이 감동한 이유를 ‘찬양이 그냥 곡조 있는 울림으로만 들려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 준비하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삶이 자신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셨는데 하나를 더 보탠다면 여러 부서가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힘을 합쳐(협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공연)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3 주님의교회 칸타타 공연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염인호 안수집사 / 호산나 찬양대장

유아세례

부모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되길



고이서 아기 아빠 : 고진우, 엄마 : 최석원
하나님. 이서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에게 맡겨 주신 아이가 주님 안에
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길 소망합니다. 주
님의 사랑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손주호 아기 아빠 : 손용성, 엄마 : 구혜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 주시고 가치
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가는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김소은 아기 아빠 : 김준성, 엄마 : 김아영
지혜롭고,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소은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
다. 소은이의 이름과 같이 늘 지극히 높은 은
혜를 받아 강건한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주아 아기 아빠 : 신준형, 엄마 : 이은지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몸
과 마음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
락하여 주세요.



김소이 아기 아빠 : 김종찬, 엄마 : 이소정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이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 소이가 주님의 경외하
심을 알고 장차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윤지아 아기 아빠 : 윤태현, 엄마 : 전은솔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저희 가정에서 밝고 건
강하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열매 맺는 삶
을 살게 하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지혜
로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
시옵소서.



김유현 아기 아빠 : 김동원, 엄마 : 이아영
유현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
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
고, 매사에 밝고 긍정적이며, 몸과 마음이 건강
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서우 아기 아빠 : 이세형, 엄마 : 유재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
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길, 이웃과 세상에 사랑과 기쁨을 주는 존
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하준 아기 아빠 : 김익훈, 엄마 : 백승미
하준이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통해 세상에 널리 쓰임 받는 그리
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사소하고 작
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타인의 아픔을 외면
하지 않는 밝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나게 하소서.



임이한 아기 아빠 : 임주호, 엄마 : 조화영
이한이를 통해 저희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
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한이가 저희를 통해 하
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받은 사랑 나눌 수
있는 선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박서운 아기 아빠 : 박해범, 엄마 : 박유미
하나님, 서운이가 저희 가정에 오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운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주시고 항상 사랑
이 넘치는 저희 가정될 수 있게 해주세요.



조우진 아기 아빠 : 조경인, 엄마 : 박선영
우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건강
하고 지혜롭고 준수한 아이로 자라도록 인도
해 주시고, 항상 우진이를 위해 기도하는 부
모가 되게 해주세요.



박하나 아기 아빠 : 박근영, 엄마 : 이지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 하나가 저희 가정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심 아래 하나가 강건하고 지혜로운 아이
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기
를 기도합니다.



진 준 아기 아빠 : 진강우, 엄마 : 김현정
하나님의 자녀 준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
할을 잘 감당해내며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미
치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
니다.

가정사역원
가정예배학교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표현이 자연스러운 가정

예수님 믿는 가정은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장난치며 떠돌고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에게 꾸지람도 많이 하고 형식적인 가정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가정예배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어느 순간에 모일 수 없는 시간들이 되어가면서 가정에서의 예배는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떠나오면서 20대가 된 세 자녀들의 신앙에도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드리워졌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바른 신앙을 세워 갈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던 중 딸이 다녔던 고등학교 내에 있는 주님의교회를 알고 먼저 우리 부부만 등록하고서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정예배학교 3기 모집 강의를 현장에서 하지 않고 ZOOM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우리 부부는 선뜻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준비된 신형섭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면서 가정예배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며, 형식이 아닌 사건이고,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말씀은 “나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기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나의 신앙을 더 든든히 세워가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매일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면서 서로에게 더 관심 갖고 기도해 주는 가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은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매일 감사 쓰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놀라운 일은 교회에 발길을 끊었던 큰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무지가 지방에 있는데 가족 카톡방에서 감사 나누기를 시작하면서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예배까지 가면서 지난주에는 교회등록을 하고 새가족 교육도 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딸은 아직 등록은 하지 않고 탐방 중입니다. 9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중이구요. 군 전역을 앞두고 있는 막내아들은 전역 후에 교회에 와보기로 했으며, 크리스마스 전에 전역하면 함께 교회에 가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정예배학교를 담당하시는 배운환 목사님의 즐겁게 섬기시는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기쁨으로 가정예배학교 3기 교육 끝까지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가정 안에 거룩한 기도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 표현이 자연스런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손미선 집사 / 7교구



가정사역원
가정예배학교

고마워 잘했어 사랑해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좋지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들과 함께 꼭 예배를 드려야지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지 어언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여 각기 자기의 삶을 찾아갔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주일성수하던 믿음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며 교회를 떠난 아이들과 직장생활로 바쁜 남편과 함께 다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은 소망이 가득하던 차에 가정예배학교 광고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 보는 거야. 저 교육을 들으면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신청하게 되었고 5주차에 걸쳐 가정예배학교를 마쳤습니다.

가정예배학교를 마치고 나니 아이들 어렸을 때 드렸던 가정예배는 예배가 아닌 엄마의 잔소리 시간이었고 철저한 기복신앙의 예배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형섭 교수님의 가정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명쾌한 정의에 다양한 방법의 가정예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해 갈수록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으며 함께 했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과제를 정성껏 하시는 모습을 보며 낙심했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고마워, 잘했어, 사랑해”를 날마다 표현하는 것이 처음엔 서로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제목 나누기도 첫 주에는 힘들었지만 같이 수강한 동료들과 배운환 목사님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미약하게나마 실천할 수 있었습

니다. 네 식구가 시간 맞추어 한 상에서, 다 같이 식사하기도 어려운 때에 어떻게 가족이 모여 감사제목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감사 노트를 만들어 식탁에 놓았더니 같이 모이지 못해도, 귀가 시간이 다 달라도 한 사람씩 쓰기 시작했고 감사가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집사님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고 나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낙심되기도 했지만 돌아오기에 너무 먼 길은 없다는 말을 기억하며 다시 용기를 내어봅니다. 같이 가정예배학교를 들으며 본을 보여주신 집사님, 권사님, 좋은 강의로 함께 해주신 신형섭 교수님,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주신 배운환 목사님 덕분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용기 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이 주인되시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가정예배를 세워보도록 애쓰겠습니다.

가정예배를 아직 못 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가정예배학교를 통하여 꿈을 꾸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미경 권사 / 2교구



가정사역원
파더와이즈

파더와이즈 과정을 마치며

저는 아내를 만난 지 40년이 넘었고 결혼한 지는 어느덧 37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맏이로 딸, 둘째로 아들 두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 아내는 30년 직장생활을 하고 저보다 조금 일찍 퇴직하였고, 저는 37년간 한 직장에서 몸담아 오다가 3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조그마한 회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살아오면서 아이들의 아버지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를 생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느 곳에서도 이 역할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서 ‘이러한 것을 학교나 교육 기관에서 배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항상 삶에 기다보니 깊게 생각하고 성찰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몇 달 전 먼저 마더와이즈 과정을 마친 아내와 정현식 집사님 부부께서 파더와이즈의 참여를 권유하시고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에, 참여해서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어 직접 훈육할 아이들은 없지만 저희 아들, 딸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것에 내가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아내에게 남편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더와이즈 과정을 통하여 제가 정말로 얻고, 변화하고 싶었던 것은, 그동안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의 일천한 믿음의 신앙생활에 변화를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파더와이즈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살아오면서 좀처럼 하지 않던 기도를 자주 하고, 차 안에서 유행가 대신 찬송을 듣고, 매일매일 QT를 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두 아이들을 키우며 지내 온 40년의 세월이 되 돌아보면, ‘정말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아내는 새벽 여섯 시에 매일 일어나 아침 식탁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출근해서 직장 일과 싸우고, 퇴근해서 또 같은 수고를 하고, 저 또한 오로지 직장 직장, 일 일 하면서 지난 40년을 앞만 보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앞만 보며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믿음이 없어 말씀을 모르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제일로 알고 저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있는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과 역할,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10여년전쯤, 저희 딸이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딸을 만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호텔 방에서 딸 아이가 나에게 울며 했던 말이 지금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아빠는 나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 마음이 상해 있을 나를 먼저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성적이 나왔냐고..., 무엇이 부족한 거냐고, 어떤 씨포트를 더 해줘야 하냐고..., 다그치는 듯한 말만을 들어서, 나는 이를 악물고 공부만 해야 해서 너무, 너무 힘들었다고...,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 것보다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그런

다그침을 듣지 않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라고..., 딸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 말, 사랑의 표현이 분명 나쁜 목적을 갖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였던 것들을 떠올리니 참으로 미안하고, 이 글을 통해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파더와이즈 과정을 통하여 지난 40년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머리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사는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려 다시 살 수는 없지만 예전과는 다른 따뜻한 남편, 좋은 아버지로 살아 갈 수 있는 날이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지금까지 저희의 가정을 보호해주시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이 모두 성장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정 이루시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파더와이즈 과정을 마치며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저의 생활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신앙생활 -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오로지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임을 입술로만 얘기하지 않고 정말로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는 저의 신앙생활 - 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와 저희 아이들의 가정이 모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사역의 머리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커다란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의교회와 김화수 담임목사님, 그리고 본 과정을 준비해주시고 매주, 매일, 매일 이끌어 주신 이상훈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본 과정을 인도해주신 정현식 안수집사님, 고영선 권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를 만나 지금까지 기쁨과 슬픔, 어려운 일을 함께 겪어 오면서 지금의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해준 제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8주 과정동안 함께 은혜받고 나눔을 가진 우리 2

팀원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계속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의 집사 / 3교구



편집후기



살롱! 주님의교회 가족 여러분. 2년 전 함글함글을 통해 부임인사를 드리며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이 구십 리에 이르러서도 겨우 반 정도 온 것으로 여기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반구십리’ 약속을 드

렸는데, 아직 백 리의 반도 오지 못하고 이렇게 갑작스레 사임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결정하기까지 성령님의 몰아가심을 깊이 경험하고 제가 붙들고 있던 신을 벗고, 대구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개인적으로 제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분들을 만났고, 도리어 섬기려하는 분들과 함께 했으며,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보고 배운 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 대구소망교회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 계속해서 ‘반구십리’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김화수 담임목사님과 당회분들, 6교구 가족들, 통일선교분과 및 봉사분과 섬김이들, 주방위원회와 함글함글팀,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두워져 가는 시대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기쁨을,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교회와 대구소망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류경민 목사

함글함글팀과 함께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함글함글팀과 함께하기 전에는 1년에 한 두 번 볼까 말까 했던 터라 처음에는 그저 어른들의 신문 정도로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을 꼼꼼히 읽고 매 번 발행을 하며 이 함글함글에는 주님의교회 모든 분들의 함글함글, 웃음 한 자락, 눈물 한 방울이 모여 하나의 신문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되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되길, 그리고 그런 소식을 성도분들께 잘 전하는 함글함글팀 되길 소망합니다. 박수빈 청년간사

시간의 흐름에 어느새 12월이 지나간다. 하루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노력하며 지냈는지를 내 자신은 알까? 힘들던 순간들도, 더 없이 행복하고 즐겁던 시간도 흘러간다. 그 시간 앞에 무엇이 남았으며 또 무엇을 이루었는지 생각을 해본다. 끝과 시작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시작 또한 선을 긋듯이 그 무던함 속에 일상이 있었고 함글함글 하며 함께한 시간이 소중하게 기억된다. 함께 머리를 조아렸던 기억들, 함께함에 감사를 드린다.

신형섭 장로

생각하지 않고는 글이 나올 수 없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 함글함글은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이 사역을 위해서는 1년 365일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며 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1년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중요한 내용을 놓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편집과정에서 이런저런 실수도 많았다. 부족함에도 이대로 또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원진 안수집사

함글함글에 대한 편집 회의를 통한 기사 선정과 원고 청탁과 인쇄 마감시간에 쫓기듯 산고 끝에 발행 되는 함글함글을 받아보면 작은 감동과 보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로비 곳곳에 남아 있는 부수를 보면 조바심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행간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같이 보고 글자 그대로 함께 즐겁고 함께 울수 있는 하나님 나라 소식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익수 장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또 한 해를 보내며, 전도서 말씀에서 위로와 평안과 초월을 얻습니다.

장경식 안수집사

교회일정

12/31(주일)	송구영신예배
1/7(주일)	신년감사주일
	성찬주일
1/8-13(월-토)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알립니다

1. 예배안내

- ▶ 송구영신예배 : 12/31(주일) 오후 11:20
- ▶ 신년예배 : 24년 1/7(주일)

2.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 일시 : 1/8(월)~13(토) 오전 5:30
- 주제 :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